

[10 호 학습전략] 시험 준비 전략

「가르침과 배움」 제 10 호

[학습 전략] 시험 준비 전략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학

습지원부

학생들은 시험을 통해 수강하고 있는 과목을 이해하는 능력이나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을 입증할 수 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논문이나 보고서가 성적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지만, 교수는 학습자가 제출한 보고서와 시험지로 평가할 뿐 그것을 위한 공부와 준비 과정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도 시험을 잘 못 치르거나 부주의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을 소개한다.

매일 공부는 어떻게?

- 오늘 받은 수업 내용은 각 과목마다 10 분 정도씩 할애하여 복습을 한다. 수업 중에 필기하지 못한 부분은 채워 넣고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해하도록 한다.
- 노트 필기는 좌측에는 제목이나 질문을 적고 우측에 상세한 사항을 적어 두는 방식으로 한다. 학습한 내용을 다시 점검할 때 노트 우측은 덮고서 혼자서 퀴즈를 내고 풀어보는 습관을 들여 본다.
- 책을 읽을 때는 계속 부연 설명을 해본다. 예를 들어 혼자말로 “음, 알겠어. 선생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것이로군” 하고 스스로에게 설명을 한다.
- 한 단락이나 절이 끝날 때는 중요한 어구에 밑줄을 치거나 여백에 간단한 주석을 써 둔다. 과학 과목에서는 차트나 도표, 개요에 중점을 두고 공부하면 효과적이다.
- 교과서가 어려울 때는 개괄서를 사서 배울 장을 미리 읽어둔다. 수업 전에 평이하게 설명된 해석을 이해해 두면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며 교과서를 더 빨리 읽을 수 있게 된다.

복습은 어떻게?

잊어버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Ebbinghaus 의 망각 곡선에 의하면 공부한 직후 24 시간 안에 배운 내용을 가장 많이 잊어버리고 하루가 지나면 학습한 내용의 46%를 잊어버린다고 한다. 14 일이 지나면 79%, 28 일이 지나면 81%를 잊어버린다. 학습이 잘 되었다는 것은 망각될 가능성을 그만큼 낮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습한 내용 혹은 강의를 들은 내용은 하루나 이틀 안에 복습하고, 몇 주 후에 다시 간단하게 복습하도록 하자.

○ 개요 만들기

학습한 내용을 요약 노트나 차트, 도표 등을 작성하면서 간단한 개요를 만들어 본다. 단순히 노트를 베껴지 말고 내용을 압축하고 부가적인 설명도 해본다. 하지만 플래쉬카드나 요약 노트를 몇 시간에 걸쳐 카드를 만들어놓고도 정작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카드는 단편적이고 개별적인 사실들(예를 들어 약학 수업에서 배운 약품명)을 암기하는 데는 유용할 수 있지만 개념을 공부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카드를 만드느라고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 보다는 수업 시간에 작성한 노트를 중심으로 혼자서 퀴즈를 내고 풀어보는 방법이 보다 효과적이다.

○ 단순한 암기는 피한다.

대부분의 대학 교과 과정에서 대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개별적인 사실의 암기가 아니다. 개념들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고 한 개념과 다른 개념의 유기적인 관계를 설명할 수도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각각의 이론에서 다루는 내용을 개별적으로 단순 암기 하지 말고 각 이론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본다. 정보를 단순하게 암기하지 말고 그 원인과 방식을 설명하고 실제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 실례는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다.

○ 함께 공부한다

혼란스러운 개념에 대해 다른 학생이나 교수 혹은 조교(T.A)를 찾아가서 얘기해 달라고 부탁해 보자. 다른 학생과 함께 공부하거나 그룹으로 공부하면 자신이 학습한 내용을 설명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시험에 어떤 것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는지 서로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시험공부는 어떻게?

○ 정보를 시각화한다.

개별적인 사실들을 머릿속에 채워 넣는 것에 급급하지 말고 그러한 개념이나 사실을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이나 기억 체계에 대해 생각해 본다. 암기량이 너무 많거나 머릿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기가 힘든 문제들을 외울 때는 기억술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뇌의 절반은 시각적인 이미지로 생각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칠판에다 개념에 대해 정리하면서 시각화해 본다.

○ 공부할 것을 결정한다.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것을 공부하려고 하면 깊이 있게 알기 어렵고, 따라서 알기만 할 뿐 어떤 것도 완전하게 기억할 수 없게 된다. 학습할 내용에 초점을 두어야 할 범위를 한정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 내가 교수의 입장이라면 어떤 것을 시험에 낼지를 생각해 본다.

스터디 가이드, 수업시간에 복습한 것, 시험 전 강의 시간 때 언급된 화제들, 칠판에 적혀 있었던 자료 등에 반드시 유의하라. 교수님에게 부탁해서 지난 시험 문제를 복사하든지 그게 안된다면 샘플 문제를 몇 가지라도 구해서 교수님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는지를 분석하고 사고의 유형을 찾아봐야 한다. 교수님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문제를 어떤 식으로 묻는가를 사전에 조사해 두면 도움이 된다.

○ 시험 연습하기

시험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을 미리 검토한 뒤, 각 장을 살펴보면서 핵심 포인트를 파악해야 한다. 일단 핵심 포인트만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험 전에는 적어도 한번은 시간을 정해놓고 연습 시험을 치러야 한다. 수학 시험의 경우, 시간 안에 다 끝나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간 제한을 두고 연습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연습 문제를 많이 풀면 풀수록 시간도 더 빨라진다. 문제를 푸는 시험(수학, 물리학, 화학 등)전에는 적어도 2~4 개의 연습 문제를 스스로 출제해라. 만약 교수님이 연습 시험을 시행하는 분이라면 그것을 모델로 삼아 스스로 몇 가지 문제를 더 작성해 보거나 각 장의 마지막에 출제돼 있는 문제들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참고 문헌

Eileen Tracy(2002), *The student's guide to exam success*, Open University Press.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홈페이지:

<http://www.vcsa.uic.edu/MainSite/departments/ace/home/strategies>